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 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월 3일 (제107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도전하라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외향적인 것을 닮게 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닮게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분을 닮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서 불가능한 일이 존재할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짓고 안주하기에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다. 잠언 26장 14절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만 번을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고, 단지 전구를 만드는 데 만 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 이 세상에 제2의 빛을 제공했다.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려면 먼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했기 때문 아닌가.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항해를 떠나야 대양을 만나고, 거기서 온갖 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편안한 삶이나 추구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바라라’, ‘입을 크게 열라’ 하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라 하신다. 안주하지 말고 힘

들지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다. 안주하는 자에게 찬란한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다. 새해에는 어두움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력의 원천이요, 지혜의 원천이요, 재력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승리에 찬 2021년을 되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자.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0:9~17)

소문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이는 소문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소문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소문을 내야지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소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는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습니다.

성공과 광고는 나란히 가는 파트너입니다.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광고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입소문이었다면, 지금은 SNS 등을 통한 소셜미디어와 매스컴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좋은 소문도, 나쁜 소문도, 때론 거짓 소문도 순간 퍼져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 내 관리는 물론이요,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목이 되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자르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소문내셨습니다. 성경 처음 장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문내셨습니다. 구약에는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시고, 그 아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소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냈던 자가 아닙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요1:26~27).

광고와 성공은
정비례한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말씀한 바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문을 내셨고,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며, 자신을 통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직접 알리셨습니다.

소문이란 광고를 말하는데, 광고란 자고로 청각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인 것이 잘 먹힙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보다 TV 광고가 더욱 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도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난 광고 전략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

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4:48).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저 역시 모든 집회 전에 성령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시대인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광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뒤를 이어 계속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고를 잘 못합니다.

왜요? 보여줘야 믿는데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행실과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력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너나 믿어라.’는 소릴 듣는 겁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전도자로서의 신앙을 갖질 못했기에 예수의 소문이 안

먹히고, 우리의 광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

아름답게
에게
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법,
내가 예수
를 체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소문
을 낼 수 있
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고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변화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나니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요4:28~30).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광고하고 소문낸 것입니다. 이대론 안 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대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올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가 봐도, 뉴욕에 가 봐도 거리 곳곳마다 삼성과 LG의 광고판이 도

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일본의 소니(SONY)와 파나소닉(Panasonic)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영광에 취해 있다가 도태당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그 옛날의 대영제국이나 무적함대 스페인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 영적 개혁을 일으켜 첫사랑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광고판이다

제가 해외선교에 주력하는 것을 본 혹자들은 “그 돈으로 교회를 짓든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라고 불멘소리를 합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중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됩니다. 조지 뮐러 같은 사람 하나가 변화되니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광고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미국 슈퍼볼대회 같은 곳에 엄청난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 장사를 하든,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든 광고하세요. 광고와 성공은 반드시 정비례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나에 대한 소문이 어찌나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지, 좋은 소문이 나 있는지 살펴 나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소문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다윗처럼 ‘찬양을 잘 하는 자’로 소문이 나야 하고, 요셉처럼 ‘진실된 자’라고 소문이 나고, 고넬료처럼 ‘구제를 잘 하는 자’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언행심사에 조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이 있는데 안 팔립니까? 결혼절령기의 자녀가 있습니까? 광고해야 합니다. 소문을 내야 합니다. 광고만이 생존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2021년 새해를 맞아 고단 목사님들의 새해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았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며칠 전에 권사님 댁에 심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께서 예배 후에 “코로나가 무섭나요? 지옥이 무섭지요.”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마13:51~52).

깨닫는 자가 깨달은 것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다. 즉 만물이 깨닫는 자의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유명한 말을 하는 자보다 유명한 말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더 유명한 자가 된다고 한다. 지혜로운 자는 만물을 보고 깨닫는다.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듣고 깨닫고,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도 깨닫는다.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성 어거스틴은 어린아이들이 집 앞을 지나가며 부르는 찬송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여 교회에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결정하는 큰 족적을 남겼다. 미련한 사람은 공이로 찢어도 모른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떡을 떼어 먹여주어도 깨닫지 못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사단에 사로잡혀 귀와 눈이 막혀버린 것이다. 당시 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주께서 예언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돈으로 로마

병사들을 매수하지 않았는가. 만물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화도 복이 된다. 느브갓네살처럼, 므낫세 왕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코로나 시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 예배를 못 드리다니, 학생이 학교를 못 가다니,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살다니...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일도 깨달으면 인생 최대 전회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성경 속에서 그동안 수없이 보고 들었던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들, 우리가 본적 없고 말씀을 통해 전해 들어온 이야기들,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마른 막대기가 하룻밤 사이에 짙어지고 열매를 맺고, 비가 와서 온 세상을 덮어 온 인류를 멸절하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한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죽은 자 사흘 된 송장

이 살아서 걸어 다니고, 문둥이, 병어리, 소경이 치료받고... 헤아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상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가신 주님의 약속도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자. 주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믿는 자들을 데리러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약속 말이다. 오늘이 그 날이 될 수도 있다. 백보좌 심판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도 실상임을 얼른 받아들여야 한다. 권사님의 말씀처럼 ‘코로나가 무섭나? 지옥이 무섭지.’

듣고 깨달으면 복이다. 이 일도 곧 지나간다. 새해는 좀 더 주님을 닮고 싶다. 좀 더 주님을 알고 싶다. 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좀 더 주님을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서울예수중심교회 이시대 목사

내가 성장한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되었다. 태양이 긴 어둠을 뚫고 빛을 밝히는 것처럼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추는 새해가 시작되었다. 작년 한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다. 이제 코로나라는 터널의 끝자락이 보인다. 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자유로운 만남과 이동, 그리고 자유로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믿음의 형제자매와의 교제와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에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해야 할일이 많아졌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나님을 향하

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몇 달 전 새벽, 코로나 사태와 교회의 부흥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떡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때 내 마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성장한 만큼 교회는 부흥된다.” 그렇다. 내 기도의 성장,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장을 해야 한다. 큰 자가 되려하지 말고 더욱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의 성장,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의 성장,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성장되어야 한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했으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에 40년 광야에서의 고난을 통하여 훈련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 요셉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이 있었지만, 13년간의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 느끼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면 코로나라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

다.

언젠가 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아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정말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고, 어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모든 저주를 몰아내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장점이 너무나 뚜렷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면 더욱 큰 부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은 성장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중심의 젊은 친구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많은 주의 종들에게 각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이끌게 하신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예수중심의 성도들을 인도하시게 하셨다. 예수중심 교인뿐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도록 지구촌에 세워주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단의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내가 불이 붙지 않았는

데 어찌 남에게 불을 붙일 수 있겠는가! 기도의 불을 붙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살아나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보인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사라지면 사명은 잊어버리고 내 신앙 생활하 기도 벽차한다.

목사님이 “생각해 보자! 불 꺼진 제철소, 불 꺼진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무섭고 소름끼치는 말씀이다. 코로나라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어떤 이는 형체도 없이 믿음이 사라지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정금같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다 우리 다시 일어나자! 세상이 예수중심의 영혼 구령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힘을 내어 힘써서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힘써 받자!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자!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인천예수중심교회 장영국 목사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 일어나 불을 붙이자!

:: 신년사 ::

:: 귀를 기울이세요 ::

모방은 제2의 창조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그해의 목표를 세운다. 올해는 이것만은 꼭 이루리라고 자신과 다짐을 하고 시작한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연초에 세운 목표를 이룬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에 이루지 못했음을 알고 다음 해로 넘기고, 또 그다음 해로 넘기곤 한다. 물론 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목표가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꼭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해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거듭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신앙도 그렇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마음의 결단을 하였으면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함에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가? 그럴 때마다 총회장 목사님을 생각해본다. 포기를 모르는 삶,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불가능 없는 믿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지혜, 쉼 없는 기도, 두려움 없는 자신감에 흐트러짐 없는 행동과 자세와 언어까지 무엇 하나 정도(正道)에 어긋남이 없다. 그리고 끝없는 도전과 모험을 통하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건재함을 보이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한한 도전 정신을 심어준다.

이렇듯 총회장 목사님의 삶을 보고 나는 목표를 세워본다. 내 인생의 목표는 “총회장 목사님과 같은 믿음은 물론이요, 당신의 삶처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목표이며 인생 최종 목적지는 천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비뚤어진 목적과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과 행

동을 보고 따라 해보십시오.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목사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다면 인생의 목표인 천국으로의 입성은 확실하리라 믿습니다. 나의 신앙과 인생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쉼 없는 기도와 말씀에 따라 바른 신앙을 지켜 여러분의 목표를 꼭 성취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이 힘들어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우리를 쓰러트리려는 악한 마귀의 꾀계입니다. 그 악한 마귀 귀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며, ‘강한 바람이 불면 엎드리고, 소나기가 오면 피하라’는 말씀처럼 개인 방역을 잘 준수하면서 두려움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중심교단 사무국장 이석실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습관을 바꾸면 암이 낫는다 - 마음편

2017년 국가 암 정보센터에 의하면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라고 한다. 80세 남자는 5명 중 2명(39.6%),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3.8%)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암이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고, 암으로부터 예방하는 습관과 발병 시 치료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만성 염증이 암이 된다는 원인은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하여 검증이 되었다. 염증이 생기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만성적이게 되면 세포의 손상도 지속적으로 손상된다. 손상이 있을 때 마다 손상된 세포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세포는 증식의 필요가 생긴다. 그것이 반복되다보면 자동적으로 빠르게 세포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유전자의 방향성을 결정해버린다. 즉 만성염증으로 손상된 세포를 채우려고 빠르게 세포를 증식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빠른 재생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전자가 암유발유전자(oncogene)가 된다. 이러한 암유발유전자는 무조건 나쁜 역할만 하지는 않고 세포의 손상에 빠른 증식을 돕는 좋은 기능도 한다. 다만 이 유전자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제 역할을 하고 증식을 멈추고 사라지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데, 그것이 조절되지 않아 변형된 모습이 암세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잘 다스려야 한다.

염증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심리적인 원인으로도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적인 갈등, 또는 교착상태가 오면 몸에 만성염증이 만들어진다’고 신체심리학에서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염증은 외부 감염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면역세포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회복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심리적인 갈등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없어도 염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는 구절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염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인관계(가족, 직장)를 개선하거나 내면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에도 만물의 주인인 신 주님께서 영육 간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크건 작건 충격과 트라우마나 사건들을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것은 심각한 외상사건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처가 이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간은 외상으로 인해 주저앉는 피상적 존재가 아니라, 외상사건에서 의미를 반추하고 성장하는 능동적 주체라는 점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외상사건에서 겪는 고통 또는 슬픔과 치열하게 싸우며, 기존에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던 인식의 틀을 깨고 내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층 성장하는 것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고 정의했다. 성경에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편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작성했다. 외상의 충격적 사건들로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 위로와 은혜로 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성장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한다. 암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로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외상 후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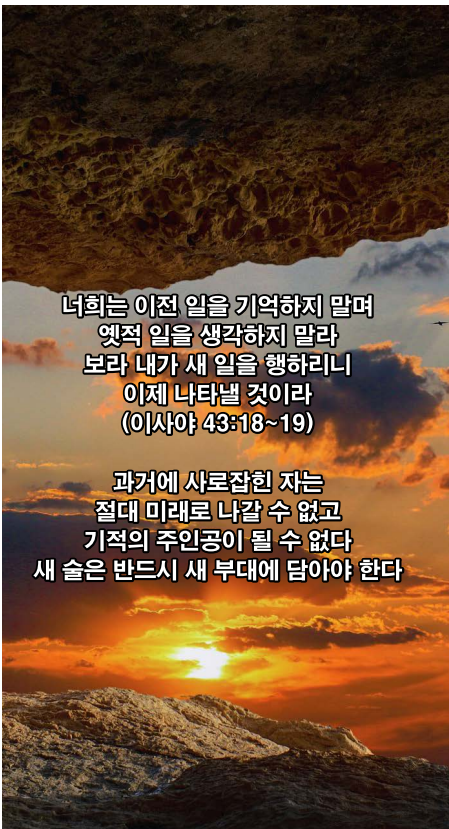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온택트’ 전성시대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Uncontact) 생활화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신조어가 출현했다. 그것은 바로 ‘온택트’로 언택트(비대면)에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인데, 비록 같은 장소에 있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접속한 이들이 하나 됨을 강조하게 되는 코로나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온택트 시대’의 필수품인 인터넷 앱 ‘ZOOM’은 전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되었다. 기존 재택근무 화상회의 앱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ZOOM’은 PC에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모임의 호스트가 ‘ZOOM’에서 방을 개설하고 참석할 사람들을 초청하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이다. 이런 온택트 시대에 맞춰 예수중심교회에서도 ‘ZOOM’을 이용한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JC 아카데미에서는 온택트로 참여한 청년들과 함께 찬송하고 질문, 답변까지 듣고 있으며, 서울교회 교역자들은 ‘ZOOM’을 통한 3~5인의 화상 심방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본인이 소속한 청년부에서는 ‘온택트 송년회’를 개최하여 동시에 130여 명이 소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행사를 진행하는 본부에서만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의 얼굴과 함께 집에서 찬양, 기도하는 것을 공유하고, ‘온택트’로 참여한 모두의 댓글 등을 읽어주며 실시간으로 쌍방향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에 처음 시도되었던 ‘온택트 송년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청년들은 주안에서 하나 됨을 느낀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은 삶에서 벗어나 코로나를 이기고 디지털 시대를 앞서나가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들 됩시다. 할렐루야!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8~19)

과거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 미래로 나갈 수 없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